



Leeum Newsletter

Summer 2013 / Volume 25



바늘여인

A Needle Woman



올해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작가로 선정된 김수자는 천과 바느질을 매개로 한 작업으로 1990년대 이후 국내외 미술계에서 주목 받아 왔다. 김수자의 작업은 천을 이용한 작품에서 영상까지 다양한 형식으로 펼쳐지며 여성주의, 일상성, 유목주의 등 현대미술의 주요 담론과 연계된다. 전통 이불보에서 영감을 받은 초기의 작업이 실제 바늘과 실로 천을 꿰매는 과정을 거친다면, 이어지는 보따리 작업에서는 싸고, 묶고, 푸는 행위가 바느질을 대신한다. 나아가 비디오 작업인 〈바늘여인〉은 작가의 신체가 바늘이 되는 비유적 성격을 띤다. 이 작품은 도쿄, 상하이, 델리, 그리고 뉴욕의 변화가 한 복판에 가만히 서 있는 작가의 퍼포먼스를 찍은 영상으로, 작가의 신체는 여러 도시 사람들의 일상에 침투하여 보이지 않는 실로 이들을 한 땀 한 땀 잇는 바늘로 은유된다.

이진아, 삼성미술관 Leeum 학예연구원

Kimsooja, the artist of the Korean Pavilion in this year's Venice Biennale, first gained an international reputation in the 1990s. Ranging from needlework to video, Kim's work addresses some of the principal discourses in contemporary art such as feminism, everyday life, and nomadism. While her early works influenced by traditional bedcovers employ the actual process of sewing cloths with needle and thread, her later *Bottari* works substitute sewing with the act of wrapping, tying and untying. In her video *A Needle Woman*, it is the artist's body that becomes a symbolic needle. This performance video shows Kim standing in the middle of busy streets in Tokyo, Shanghai, Delhi and New York. Like a needle, her upright body threads the everyday lives of people in different cities, and connects them together as with invisible stitches.

Lee Gina, Curatorial Assistant, Leeum

김수자, 바늘여인-도쿄, 상하이, 델리, 뉴욕, 1999-2000
4채널 비디오 프로젝션, 크기 가변
Kimsooja, *A Needle Woman-Tokyo, Shanghai, Delhi, New York*, 1999-2000
Four-channel video projection
Dimensions variable, 6:33, Silent